■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9〉

宜戚而懼

의 척 이 구

마땅히 슬퍼하며 두려워해야 하거늘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온 나라가 야단이다. 연일 곳곳에서 시위로 몸살이다. 이러다가는 해방 후 70년 동안 폐허에서 세계 굴지의 나라로 발전시킨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식자(識者)들에게서 나온 지 벌써 한참 되었다. 그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하든 여야(與野) 정치인과 그 세력들의 행동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권력을 빼앗거나 지키기에 혈안(血眼)이어서 그들에게서 우리의 선배들이 쌓아 놓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는 삼국지라도 한 번 읽고서 역사를 반추해 보아야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삼국지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겠는가 싶다. 삼국지연의야 유교적 정통론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힌 시대에 삼국시대를 유비 중심으로 보려고 각색하였지만, 실제로 후한말 헌제(獻帝)시절의 실권자이고 중심인 인물은 승상인 조조(曹操)였다.

명목으로는 헌제가 황제이고 조조는 승상이지만 모든 권력은 조조의 손에 있었다. 그래서 조조에게는 헌제가 9석(錫)까지 내려주었다. 이제 조조가 출입할 때는 황제가 출입할 때만 하던 경필(警蹕)하는 의장(儀仗)을 하도록 하였으니 비록 남쪽으로 손권(孫權)이 있고 서쪽으로는 유비(劉備)가 있지만 조조가 중원지역의 최강자이고 황제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와 흡사하다 할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은 조조도 나이가 많아서 자리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그 후계 자리를 놓고 그 아들 사이에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졌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야(與野) 같다고나 할까?

조조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다. 조비(曹丕), 조창(曹彰), 조식(曹植), 조웅(曹熊)이다. 물론 장남인 조비에게 후계자로서의 우선권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지에는 많은 변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특히 셋째 동생 조식 때문이다. 그는 남다른 재주를 가졌고 그의 성품은 기민하고 경계심이 있으며 기예와 재능이 많았는데, 그 위에 문장을 짓는 재주도 있고 민첩하면서 여유로움도 있어 조조가 그를 아꼈으니 조비에게는 위협적 경쟁자였다.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조식을 밀고 있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 가운데 정의(丁儀)가 있었는데, 그는 조비에게 악감정을 가졌다. 왜냐하면 조조가 그 딸은 정의에게 시집보내려 했을 때 조비가 정의는 짝짝이 눈을 가졌다고 반대하여 이 일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와 뜻을 같이 하는 그의 동생인 정이(丁)는 황문시랑(黃門侍郎)이었으니 항상 궁궐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조조를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승상부(丞相府)의 주부 양수(楊脩)도 있어서 이들은 기회 있을 적마다 조조에게 조식을 칭찬하면서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였다.

조조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묻자, 그래도 장남을 후계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여 조비는 이들의 도움을 받으니, 동생 조식과 경쟁은 겉으로는 형과 동생이지만 속으로는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했다. 동생 조식을 의식한 조비는 태중대부 가후(賈詡)에게 자기가 후계자가 될 술책을 자문하였다. 가후는 술책을 알려주는 대신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덕망의 정도를 넓히고 높이고, 몸소 소사(素士)들이 하는 학업을 익히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하며 자식 된 도리를 어기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비는 오관중랑장이었기에 그를 장군이라고 호칭하며 아들로서의 기본을 지키면 된다는 충고였다.

그러나 조비는 아들로서의 기본은 지키기보다는 눈치작전에 힘을 기울였다. 한번은 조조가 늙은 몸으로 출정(出征)하게 되었을 때 조비와 조식은 나란히 출정하는 아버지를 환송(歡送)하기 위하여 길가에 나와 있었다. 이때 조식은 그 화려한 글 솜씨로 아버지 조조를 칭송하였다. 이를 듣는 사람들은 역시 조식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비는 바로 위기(危機)를 느끼던 차에 바로 옆에 있는 오질(吳質)이 술책을 제시하였다. "대왕께서 떠나시게 되었으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옳습니다." 조조는 이때 위왕(魏王)이었으므로 조조를 눈물로 전송하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들은 조비는 아버지 조조를 향하여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것으로 전별(餞別)하였다. 이를 본 조조와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조식의 화려한 말은 진실한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눈물 작전이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조비의 눈물은 오질의 권고에 따른 술수일 뿐이었고, 진심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조식은 성품대로 행동하며 스스로를 새기거나 꾸미지 못하였으나, 조비는 감정을 술책으로 제어하며 고치고 스스로를 꾸미니, 그 술책에 떨어진 궁인과 주위의 사람들이 나란히 그를 위하여 칭찬하는 말을 하였다. 결국 조비는 태자로 정해졌다. 술수가 성공한 셈이다.

태자가 되자 조비는 바로 의랑인 신비(辛毗)의 목을 껴안고 말하였다. "신군(辛君)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여기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수식하던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은 들은 신비의 딸 신헌영(辛憲英)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태자께서는 군주를 대신하여 종묘와 사직을 주관하실 분입니다. 군주를 대신한다는 것은 슬프지 않을 수 없고, 나라를 주관한다는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당 슬프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기쁘게 여긴다면,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위나라는 창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할 일의 무게를 모르고 아버지가 이룩한 과실만 따먹으려는 조비의 술수를 비판한 것이다.

신헌영의 예언대로 되었을까? 조비를 태자로 삼은 조조는 얼마 뒤에 죽었다. 조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漢) 헌제(獻帝)의 제후인 위왕(魏王)에 올랐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그는 허울뿐인 황제 칭호를 갖고 있는 헌제에게 자기에게 선양하게 하여 황제 자리를 빼앗았다. 그리하여 위왕조를 열었다. 그리고 아버지 조조의 상기(喪期) 중인데도 그는 황제가 되어 연회를 거창하게 열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잘 되었다는 뜻일까?

그러나 신헌영의 말대로 그가 황제에 오르자, 유비도 촉에서 황제에 올랐고, 얼마 지나자 손권도 오(吳)나라를 세우고 황제에 오른다. 삼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魏)에서는 사마의(司馬懿)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권력은 사마씨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명목만 남은 위(魏)왕조는 세운 지 45년 만에 조(曹)씨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황제자리마저 사마염(司馬炎)에게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술수로 이룩한 허망한 꿈이 무너진 것이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지금 다투고 있는 여야는 술수로 지고 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어디에도 선배들이 이룩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업적을 이어받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더 발전시킬 꿈을 제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을 쟁취하여 선배들이 이룩한 과실만 따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를 보는 선량한 백성들은 괄목할 만큼 성장한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술수로 자리를 차지하여 선배들이 이룩한 과실을 챙기려는 정치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면서 앞날을 걱정한다. 제발 조비 같이 술수 꾼인 인물만은 승리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극기복례(克己復禮)

이길 극. 몸 기. 다시 복. 예절 례.

지나친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름.

유래 : 안연이 공자에게 인을 물었다. 공자가 답하였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라도 사욕을 버리고 예(禮)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의 실천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느냐?"

안연이 물었다.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공자가 답하였다.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라" 안연이 말했다.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출전 : 논어 안연편)

요즘 세상이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멀어 의(義)와 인(仁), 예(禮)를 멀리하고 있는 사례를 자주 보는데 나부터 반성하고 뜻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극(克)이란 이긴다는 것이고, 기(己)란 몸에 있는 사욕을 말하며, 복(復)이란 돌이킨다는 것이고, 예(禮)란 천리(天理)의 도덕적 법칙이다.

극기복례의 실천 조목인

"예가 아니면 보지말라(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非禮勿言)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動)"은 사물(四勿)이라는 일상의 행동지침으로 선현들의 생활 속에 실천되었고 중요한 건물 기둥이나 벽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극악무도(極惡無道)

다할 극. 악 악. 없을 무. 길 도.

지극히 악하고 도의심이 없음을 뜻한다. 악한 모습이 극에 달해 어떤 도리도 갖지 못함. 악한 중의 악한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 간악무도(奸惡無道), 잔학무도(殘虐無道) 등도 비슷한 말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가까울 근. 먹 묵. 사람 자. 검을 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래 : 무릇 쇠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겉 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주사(朱砂)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가이 하면 검게 된다.

금과옥조(金科玉條)

쇠 금. 과목 과. 구슬 옥. 가지 조.

금이나 옥과 같이 귀중한 법칙이나 규칙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나 규정

유래 : 한나라 양웅이 반란을 한 왕망에게 아첨하면서 바친 글이 극진미신(劇秦美新)에서 유래했다.

왕망이 정권을 찬탈하자 양웅은 왕망의 정권을 찬미하는 문장을 바치는데 이것이 극진미신이고 금과옥조는 그 찬양문 중 한 구절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2025 상반기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임시회의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중근)가 주최하는 "2025 상반기 파종회장협의회 임시회의"가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권중근 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권기덕, 권기호, 권주연 세 고문, 권우영 종파회장, 권헌종 부호장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효준 부정공파회장, 권기홍 군기감공파회장, 권순복 정조공파회장, 권정택 검교공파회장이 참석하였다.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파종회는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윤 협의회 사무국장 등 모두 23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 국장은 고문 네 명 중 참석한 세 고문을 일일이 소개한 후 각 파종회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 회장인사, 기타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를 한 후 권중근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2월까지는 별다른 안건이 없으나 각 파종회장들의 얼굴도 보고 춘향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니 좋은 이야기가 나오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토의에서 권오익 대종회 사무국장은 "각 파종회장님들은 올해 시조 및 아시조 춘향제 때 헌관 및 재유사를 할 사람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추천이 들어와서 선임해 놓은 헌관은 시조묘소 도유사에 권주연(부호장공파·파종회장협의회 고문)을, 아시조 축관에 권태은씨를 선임해 놓았다고 밝혔다.

권오식(좌윤공파 부회장)은 파종회장협의회는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되었음으로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을 꼭 참석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각 파종회 별로 능동장학회 장학금을 탈 대학생 1명씩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오는 3월 1일 2025년 안동권씨 신년 인사회가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개최하는데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5kg 들이 백진주 쌀 1부대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참석자들은 안동시 당북동 제비원로에 있는 '부창한정식' 집으로 이동,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5年 3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2.24. ~ 3. 23.
총 납부자 325명 / 지사 7곳

(이름순) **총 12,270,000원** 단위:원

※세무회계남산 30,000	권동균(안동) 30,000	권순근(강릉) 30,000	권영수(안동 용상동) 30,000	권오양(양산) 30,000	권장섭(강릉) 30,000	권철주(서울관악) 30,000	권혁순(서울강남) 30,000
권강주(성남) 30,000	권동열(서울송파) 30,000	권순노미(안동) 30,000	권영순(영주) 30,000	권오연(영주) 30,000	권재겸(화성) 30,000	권철진(창원) 30,000	권혁열(음성) 30,000
권경석(대전) 30,000	권동원(서산)30,000	권순복(부산) 30,000	권영식(대구 북구) 30,000	권오완(예천) 30,000	권재국(산청) 30,000	권춘우(영주) 30,000	권혁용(강릉) 30,000
권경일(대구) 30,000	권동일(안동) 30,000	권순상(강릉) 30,000	권영식(대구 서구) 30,000	권오용(구미) 30,000	권재동(합천) 30,000	권충옥(서울마포) 30,000	권혁용(청주) 30,000
권경택(서울금천) 30,000	권동임(정읍) 30,000	권순연(안동) 30,000	권영식(밀양) 30,000	권오운(예천) 30,000	권재만(인천) 60,000	권충욱(함안) 30,000	권혁우(강릉) 30,000
권경헌(부여) 30,000	권동재(과천) 30,000	권순용(보성) 30,000	권영식(서울서대문) 30,000	권오일(서울마포) 30,000	권재목(안동) 30,000	권충현(대구) 30,000	권혁웅(경주) 30,000
권광규(오산) 30,000	권동주(장수) 30,000	권순욱(서울강서) 30,000	권영신(양평) 30,000	권오정(영주) 30,000	권재옥(화성) 30,000	권칠용(수원) 30,000	권혁정(김천) 30,000
권구민(서울송파) 30,000	권동찬(경주) 30,000	권순익(강릉) 30,000	권영오(안동) 30,000	권오준(부천) 30,000	권재원(안동 지리) 30,000	권칠훈(문경) 30,000	권혁조(안동 문평길) 30,000
권규석(제천) 30,000	권동현(청도) 30,000	권순일(나주) 20,000	권영우(음성) 30,000	권오진(안동 무릉리) 30,000	권재원(정읍) 30,000	권태경(안동 송현동) 30,000	권혁조(포항) 30,000
권규택(서울중구) 30,000	권두채(전주) 30,000	권순자(안동 불무골) 30,000	권영운(김포) 30,000	권오찬(경주) 30,000	권재홍(거창) 30,000	권태명(안동) 30,000	권혁주(칠곡) 30,000
권극상(구미) 30,000	권두현(수원) 30,000	권순창(안동 송현동) 30,000	권영제(서울강서) 30,000	권오찬(청송) 30,000	권정국(대전) 30,000	권태문(진천) 30,000	권혁준(이천) 30,000
권근오(강진) 30,000	권두호(구미 원남로) 30,000	권순창(안동 안흥동) 30,000	권영조(안동 용상동) 30,000	권오철(영주) 30,000	권정수(서울서초) 30,000	권태복(서울금천) 30,000	권혁중(강릉) 30,000
권기대(대구 달서구) 30,000	권만집(상주) 30,000	권순채(경주) 30,000	권영존(청주) 30,000	권오청(서울은평) 30,000	권정열(진주) 30,000	권태순(안양) 30,000	권혁집(강릉) 30,000
권기대(천안) 30,000	권만택(경주) 30,000	권순철(강릉) 30,000	권영찬(영동) 30,000	권오추(안동) 30,000	권정집(세종) 30,000	권태양(안동) 30,000	권혁춘(강릉) 30,000
권기덕(안동 태화동) 30,000	권명무(김해) 30,000	권순치(대구) 30,000	권영창(영천) 30,000	권오춘(포항) 30,000	권정태(합천) 30,000	권태열(안동) 30,000	권혁환(평창) 30,000
권기동(강릉) 30,000	권명섭(대구) 30,000	권순칠(서울강동) 30,000	권영철(안동 녹전로) 30,000	권오택(강릉) 30,000	권정택(상주) 30,000	권태우(화성) 30,000	권혁훈(진천) 30,000
권기락(안동) 30,000	권문택(전주) 30,000	권순한(서울강남) 30,000	권영필(영동) 30,000	권오현(대구 동구) 30,000	권정현(인천)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현규(고양) 30,000
권기룡(안동 당북동) 30,000	권민성(안동 노리) 30,000	권승전(강릉) 30,000	권영하(강릉) 30,000	권오형(안동) 30,000	권정호(남원) 30,000	권태은(양평) 30,000	권현욱(봉화) 30,000
권기범(수원) 30,000	권민집(대구) 30,000	권영건(창원) 30,000	권영호(안동 태화동) 30,000	권오훈(청주 1순환로) 30,000	권정호(산청 강누리) 30,000	권태인(서울강동) 30,000	권현주(강릉) 30,000
권기상(대전) 30,000	권박(안동) 30,000	권영국(안동 예안면) 30,000	권영환(대구 동구) 30,000	권옥선(대구) 30,000	권정홍(산청) 30,000	권태진(부여) 30,000	권호관(고령) 30,000
권기억(안동) 30,000	권병균(천안) 30,000	권영근(강릉) 30,000	권영환(서울은평 불광로) 30,000	권용근(서울성북) 30,000	권정홍(안동) 30,000	권태진(예천) 30,000	권호달(제천) 30,000
권기열(영주) 30,000	권병기(전주) 30,000	권영근(밀양 삼문동) 30,000	권영환(청송) 30,000	권용기(서울강남) 30,000	권정환(상주) 30,000	권태채(대구) 30,000	권호철(대전) 30,000
권기운(안동) 30,000	권병돈(광명) 30,000	권영근(서울구로) 30,000	권영훈(서울강남) 60,000	권용남(안동) 30,000	권정훈(인천) 30,000	권태현(안동 녹전면) 30,000	권홍근(합천) 30,000
권기윤(안동 법상동) 30,000	권분기(안동) 30,000	권영달(부산) 30,000	권오갑(안동 운안동) 30,000	권용덕(서산) 30,000	권종덕(인천) 30,000	권택도(안동) 30,000	권홍목(세종) 30,000
권기창(안동 도산면) 30,000	권상경(나주) 20,000	권영대(제천) 30,000	권오갑(양주) 30,000	권용승(안동) 30,000	권종렬(진주) 30,000	권택범(수원) 30,000	권홍태(서울종로) 30,000
권기창(안동 예안면) 30,000	권상도(강릉) 30,000	권영동(영주) 30,000	권오관(안동 광명로) 30,000	권용운(익산) 30,000	권종숙(남양주) 30,000	권택중(대구) 30,000	권후원(청주) 30,000
권기철(경주) 30,000	권상목(안동) 30,000	권영득(창원) 30,000	권오근(안동 이개리) 30,000	권용주(안동) 30,000	권종우(서울중랑) 30,000	권택호(안동 용상동) 30,000	권희경(인천) 30,000
권기탁(부산) 30,000	권상복(삼척 광동리) 30,000	권영래(아산) 30,000	권오근(양산) 30,000	권용훈(대전) 30,000	권종호(완주) 30,000	권택호(안동 풍천면) 30,000	권희송(서울성동) 30,000
권기현(제천) 30,000	권석원(안동) 30,000	권영록(군포) 30,000	권오기(밀양) 30,000	권우범(서울강남) 30,000	권주현(서울노원) 30,000	권택훈(경주) 30,000	권희용(서울동대문) 30,000
권기호(안동 마들큰길) 30,000	권석주(광주) 30,000	권영록(서울중랑) 30,000	권오기(서울강서) 30,000	권우식(산청) 30,000	권주호(서울노원) 30,000	권학식(제주) 30,000	목사공파종중 60,000
권기호(안동 이개리) 30,000	권석주(전주) 30,000	권영목(서울중랑) 30,000	권오덕(서울양천) 30,000	권우태(강릉) 30,000	권중규(안동) 30,000	권혁곤(고령) 30,000	정조공파종중 60,000
권기홍(영주) 30,000	권성기(금산) 30,000	권영문(안동 운안동) 30,000	권오명(통영) 30,000	권우현(진주) 30,000	권중달(포항) 30,000	권혁관(경주)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길용(안동) 30,000	권성호(예천) 30,000	권영민(익산) 30,000	권오범(서울노원) 30,000	권원수(포항) 30,000	권중필(안동) 30,000	권혁대(안동) 30,000	
권난희(서울동대문) 30,000	권성환(안동) 30,000	권영민(창원) 30,000	권오범(예산) 30,000	권유달(영덕) 30,000	권중호(강릉) 30,000	권혁도(예천) 30,000	경산종친회(35부) 500,000
권남철(인천) 30,000	권세강(안동) 30,000	권영배(제천) 30,000	권오복(강릉 교동) 30,000	권윤자(안동) 30,000	권지현(대구) 30,000	권혁두(울진) 30,000	논산종친회(20부) 300,000
권대직(안동) 30,000	권세동(대구) 30,000	권영범(안동 와룡면) 30,000	권오복(대구) 30,000	권윤택(인천) 30,000	권진성(부산) 30,000	권혁렬(강릉 교동) 30,000	안동종친회(10부) 200,000
권덕근(용인) 30,000	권세원(안동 와룡면) 30,000	권영복(안동 길안면) 30,000	권오봉(안동 일직면) 30,000	권윤호(대구) 30,000	권진택(경주 동천동) 30,000	권혁록(강릉) 30,000	여주종친회(11부) 220,000
권덕산(안동) 30,000	권세원(영주) 30,000	권영상(논산) 30,000	권오빈(강릉) 30,000	권이도(부산) 30,000	권진현(함양) 30,000	권혁만(강릉 교동) 30,000	원주 비전력부위파종중(7부) 140,000
권덕주(전주) 30,000	권세종(안동) 30,000	권영선(강릉 교동) 30,000	권오석(창원) 30,000	권이철(김포) 30,000	권진회(진주) 30,000	권혁무(대구 남구) 30,000	원주 추밀공파 거처사공종중(20부) 600,000
권덕중(서울성북) 30,000	권수익(제천) 30,000	권영선(강릉 사천면) 30,000	권오섭(진천) 30,000	권익수(아산) 30,000	권찬달(영덕) 30,000	권혁묵(강릉) 30,000	화성위종중(23부) 460,000
권도현(창원 합성동) 30,000	권순갑(용인) 30,000	권영성(안동 현하리) 30,000	권오성(광명) 30,000	권인섭(의성) 30,000	권창중(제천) 30,000	권혁문(서울용산) 30,000	
권돈원(대전) 30,000	권순규(서울서초) 30,000	권영수(문경) 30,000	권오성(안동) 30,000	권인식(용인) 30,000	권천영(서울용산) 30,000	권혁상(대구) 30,000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